

송년특집 - 2003년 화학산업 10대 뉴스①

미국-이라크 전쟁, 국제유가-석유화학제품 가격폭등

미국-이라크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자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크게 긴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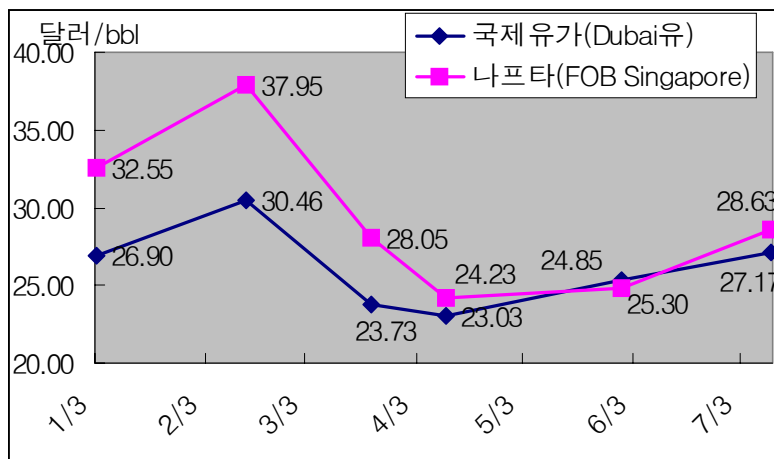
2003년 Dubai유 기준 배럴당 26.90달러로 출발했던 국제유가는 2월14일 30.46달러까지 상승했으나 전쟁 발발 직후인 3월21일에는 23.73달러로 하락했으며, 4월11일 23.03달러를 저점으로 서서히 회복돼 27달러 전후로 올라섰다.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 직전인 3월20일까지 대부분의 화학제품 국제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나프타 가격은 연초 FOB Singapore 기준 배럴당 32.55달러에서 2월14일 37.95달러로 올랐으나 3월21일 28.05달러로 급락했으며, 4월11일 24.23달러로 회복됐다.

에틸렌은 1월3일 485달러에서 2월21일 640달러, 3월7일 645달러 3월21일 495달러, 5월16일에는 320달러까지 추락했으며, 프로필렌은 같은 기간 545달러, 690달러, 690달러, 605달러, 485달러로, EG(Ethylene Glycol)는 540달러, 775달러, 765달러, 760달러, 490달러로, SM(Styrene Monomer)은 700달러, 820달러, 800달러, 688달러, 540달러로, 그리고 LDPE(Low-Density Polyethylene)는 645달러, 765달러, 770달러, 745달러, 590달러까지 저점을 형성했다.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 변동추이(2003)



반면, LG-Caltex정유와 현대Oil-Bank, S-Oil일 등 SK를 제외한 정유기업들은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에 따른 고유가 행진과 원유 수입관세 인하, 석유 수입기업의 퇴조 등으로 호황을 누렸다.

정부의 석유 수입자유화 조치 이후 약진하던 석유 수입기업들은 2003년 들어 최대 규모의 수입기업인 페타코가 무리한 덤핑경쟁을 주도하다 도산하는 등 원유 관세인하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우울한 한해를 보냈다.

<Chemical Journal 2003/12/22>